

지구촌비전

민족치유 세상변화
2017. 4 통권 204호

특집 복음에 예외는 없다

사역의 모퉁이
회심 이야기

사역팀 소개
호스피스사역팀

건강
**중년기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부인과 건강문제**

4
April

당신 곁에는



당신이가는 그 길이
어쩌면 더 멀고
더 가파르고
더 질척거리고
더 심한 눈보라 같이겠지만
당신 곁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때로
너무 어둡고
눈보라 비바람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마저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을 박수하고 격려하시니까요.

contents



특집	복음에 예외는 없다	27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관	28
	복음에 예외는 없다	32
	아름, 내 안의 작은 천국	34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35
	아름학교를 다니면서, 기쁨요vs슬퍼요	36
	내 마음의 사랑 크기는?	37
	저는 아름의 목사입니다.	38
	뜨랑슈아 베이커리를 찾아서	40
	함께 예배드리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42

원로목사 칼럼	회개와 믿음	2	OPEN 교육소감문	가슴 뿌듯한 감동과 은혜를	43
사역의 모퉁이	희심 이야기	4	연구제직	미래를 준비하는 크리스천의 일하는 습관	46
OPEN 목장이야기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7	지구촌장학회	지구촌장학회 소개	48
미취학지구	십자가의 은혜	10		감사의 편지들	50
어린이지구	어린이지구 훈련과정을 시작하면서	12	OPEN 그림묵상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52
영어예배부	The Lord's Call to Korea 한국으로 부르신 주님	15	글로벌홍스쿨링	들여라(쉬마), 믿음, 소망, 사랑아!	54
청소년지구	죽전고등학교 큐티클랜을 소개합니다	18	OPEN 건강	중년기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부인과 건강문제	56
대학지구	복음을 전하는 기쁨	20	OPEN 애송구절	내 일상의 버팀목 시편 23편	59
청년지구	지구촌교회 청년지구 사회봉사부	22	사회복지재단	어르신과 함께 그리는 희망찬 내일	60
OPEN 사역팀소개	호스피스사역팀	24	설교말씀퍼즐	새로운 부흥, 새로운 미래	62

OPEN 표지는

“열린 지면”으로서 지구촌교회 가족이면 누구나 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지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원고접수 및 안내’를 참고하세요.

지구촌비전 통권 204호
2017년 4월 9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이재혁
편집인 김영기
디자인 이기쁨
발행처 지구촌교회 역사자료문서선교팀
강효원 김경숙 김영관 김원희 김은선 김지태 동석기
박미란 박중수 성연숙 신현희 연구흠 오도연 윤경순
이미옥 이종웅 이효자 정원중 최남철 허재욱 허정식
전화 031-710-9300
www.jjguchon.org



2 0 1 7

4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 1:31a)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꽃들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들도
바라보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우리 모두 회복하기 위해 힘쓰자.

편집실

회개와 믿음

이동원 원로목사



“꿈속에서 나는 허름한 옷을 입고 서 있는 한 남자가 자신의 집을 등진 채, 손에는 책 한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는 내내 흐느껴 울며 몸을 떨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급기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외쳤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존 번연, 천로역정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사편 38:4)

“~~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사도행전 2:37)

기독교 신앙의 입문의 필수적 요청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한다. 회심의 두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는 인격적 경험이고 따라서 인격적 반응을 요구한다. 그것은 죄에 대한 지적 인정과 정서적 참회의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의지적 돌이킴을 요청한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의 주인공이 살던 도시는 멸망의 도시였고 그의 본명은 ‘은혜 모름’(Graceless)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던 그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 곧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자신의 실존적 죄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찌할꼬’라는 양심의 죄책감이라는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기독교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죄책감을 참된 죄책감과 거짓된 죄책감으로 나누었다. 참된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고 이것은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라고 말한다.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기도

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 죄의 무게가 우리를 힘들게 했사오나 이 죄를 인해
거룩한 순례자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도의 여정을 은혜로 인도하소서.

아 멘

지구촌

회심 이야기

이정하 목사 | 분당6지구



이 책의 제목은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지평서원)」이다.
그 속에는 회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주님만을 열망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내가 새해들어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다.

<1709년 7월 14일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부처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 부모는 어린 딸이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기 시작했다. 3살쯤 되었을 때,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패한 본성은 어떤 것일까?’라고 자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자답하기를 “부패한 본성은 은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일 거야. 오직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상태이지.”라고 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4살이 되자, 성경 읽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했으며, 언제라도 성경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7살이 되었을 때, 네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제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봐 두려워요.”라고 대답했다. 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주 그 의미에 대해서 묻고, 주요 구절은 곧잘 암송했다고 한다.>

이 책은 제임스 제인웨이의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지평서원)」이다. 그 속에는 회심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 주님만을 열망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그리고 어둡고 어수선한 이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심”임을 목상하게 되었다. 복음으로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며, 회개를 통하여 마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때인 것이다.

분명 지금도 성령님께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 농도와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크고 작은 공동체와 각 개인 안에서 계속되어 왔다. 회심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 나는 것이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는 성령님의 역사로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어 그들을 구원한다.

구원은 내가 죽어서 천국가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결과다. “구원”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또 죄인 된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은 죄



▲ 회심(回心, 1709版)
저자 제임스 제인웨이(James Janeway)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얼마나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인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요즘 우리 기독교는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강조해 왔지만, 구원의 필수 과정인 회개에 대해서는 희미해져 있는 것 같다. 회개와 믿음, “회심”이 함께 붙어있는 데 말이다.

영국 청교도 교회의 지도자였던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 ① 자신의 최고 만족을 땅에서 구한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며, 하늘의 행복보다 육체의 만족을 더 좋아한다.
- ② 세속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과 출세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다. 그가 성경을 읽거나 듣고, 형식적으로 신앙의 의무들을 많이 행하며,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자기 삶에서 중요한 일로 삼지 않는다.
- ③ 그의 영혼은 결코 구속의 신비를 분별하거나 맛보지 못한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도 않으며, 그 앞에 순복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리처드 백스터

“회개”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목적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죄의 위험성과 추악성을 알고 뉘우치는 것이다. 죄악을 향하는 자신의 본성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께 자백한다. 죄를 떠나, 돌아서서 창조 목적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던 내가 주님을 향하는 것,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결단과 삶이다. 주님께로 돌아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를 찾는 것이 곧 회개다. 이상하게도 이 회개의 의미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가? 그 이유는 믿음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회개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요 1:12). 주님을 전인격적(지정의, 知情意)으로 모시고 순복하는 것이다. [지]-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펼쳐 씻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청혼의 손을 내밀어 가까이 신랑 되어 주신 예수님을 안다. [정]-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죄를 시인하고 그 분의 주인 되심을 시인한다. [의]-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결혼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여기서 회개와 믿음은 현재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순종해야만 하는 것,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회심은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이기도 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자라나게 된다. 믿음과 회개도 마찬가지다. “회심”은 점진적으로 자라간다.

우리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회개는 어떨까? 회개도 마찬가지로 자란다. 회개가 커져갈수록 극히 작은 일에도 양심의 찔림을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무심코 했던 말, 성령의 감동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던 행동에 민감해 진다. 반대로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더 둔감해지게 된다. 점점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처럼 목욕하여 온 몸이 깨끗한 사람도 ‘발’은 계속 씻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합당히 여기시며, 귀히 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언제나 회심의 은혜에 빠져서 산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깊이가 계속 깊어진다. 회심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과 친밀함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깊어지고 커져간다. 회심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회심이 많아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회심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회심을 경험하며, 회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치유, 세상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도 회개하고 복음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마라나타! **지구촌**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이윤경B 목사 | 4지구 푸른54목장



자매님들이 한 분씩 목장 모임에 나오셔서
삶을 나누고 살아온 시간 동안 만났던 하나님과 또 앞으로 만날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눈물짓던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목자가 되었을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목장원에게 들킬까 봐 집 밖 출입을 최소화했던 시간이 생 각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말씀을 되뇌며 떨리는 마음으로 목장원 들을 섬긴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블레싱 때마다 목장원들의 VIP들이 오셔서 열매가 되어 목장에 나 오게 되고 일상의 소소한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하며 기쁨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셀 컨퍼런스 때 오픈 목장이 되어 매주 예배 전에 오픈 목장이 준비해야 할 것을 배우고 점검하던 중 “목자는 목장원과 함께 배가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며 멀게만 느껴지 고 다른 목장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던 배가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 목장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그 내용을 자매님들과 나누고 “우리 목장도 배가를 계획하고 기도하 기로 해요”라며 배가를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목장 원들과 학교 모임이나 학원 모임에 잘 나가서 물고기들을 잘 살펴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임에서 만난 학부모들과 수요 예배에 함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전 “목자님 오늘 VIP와 함께 예배 가요”라는 즐거운 카톡을 받으며 기쁘게 함께 예배드리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수요 예 배에 나오시던 자매님들이 한 분씩 목장 모임에 나오셔서 삶을 나누고 살아온 시간 동안 만났던 하나님 과 또 앞으로 만날 하나님에 대해 나누며 눈물짓던 감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레싱을 앞두고 목사님께서 목장 이벤트를 안내해 주시며 지원금이 있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번쩍! 머 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취미로 하고 있던 뜨개질로 그동안 나오시던 목장원들의 VIP와

우리 목장원들과 제가 뜨개질에서 만난 VIP 모두가 함께 모여 카드 목걸이를 뜨면 저의 VIP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다른 분들은 배우는 학생으로 만나 교제하며 카드 목걸이도 하나씩 가질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는 생각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샘플로 한 개를 떠보니 시간이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초보자들과 뜨기에는 목장 모임 시간으로는 한참 부족하고 뜨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만나 고민을 하다가 “반 이상 떠서 가지고 가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VIP까지 15개를 떠야 하는데 한 개를 뜨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손도 아파 2주도 남지 않은 시간에 모두 준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뜨개질 회원들에게 커피와 밥을 사주면서 “뜨개질 동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하기로 한 전날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벤트 당일 너무나 뿌듯한 마음으로 2/3 정도를 뜬 카드 목걸이를 가지고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매님들이 뜨기 어려워하고 자꾸 틀려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완성해서 가져가신 분은 4분이고 나머지 11개는 다시 뜨개질 회원들에게 부탁해서 완성을 해야 했습니다. 완성될 때마다 목장원과 VIP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카드 목걸이를 전해 주었습니다.

준비와 마무리가 힘들었던 이벤트였지만 받으며 기뻐하는 자매님들의 모습에 힘든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기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목장원들에게는 VIP를 초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VIP들에게는 목장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VIP 분들 중에 목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수요 예배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말씀과 삶의 나눔을 통해 뜨거운 감동을 주심에 감격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배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매님 중 한 분의 남편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 힘들어하시는 자매님과 형제님 가족들을 위해 목장원들이 모두 함께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의 수술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걱정으로 조여 오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형제님이 다시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고 수술을 받던 날 자매님들이 모두 와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남편일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이 아닌 평안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형제님이 심한 통증과 부정맥으로 고생할 때 매일 시간마다 목장원들이 릴레이 기도를 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형제님의 상태를 매일 전해 듣고 기도하기를 반복하다 보니 형제님은 매일 매일 조금씩 좋아져서 9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과 자녀들을 걱정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도움을 주시는 따뜻한 자매님들의 사랑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두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 또 지인의 손에 이끌려 함께 하게 된 우리는 한 목장이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배가라는 말을 떠올리면 헤어짐에 슬프기도 하지만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VIP를 위한 빈 자리를 마련하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을 전하고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는 목장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며 매일 매일 집 밖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구촌**

모두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만나
또 지인의 손에 이끌려 함께 하게 된 우리는
한 목장이며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임은담 마을장 | 수지유치 1마을



믿음의 길에 접어든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믿지 않는 지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대목에서 제가 등장합니다. 들이댄 친구로... 믿음생활 21년 차인 내가 전도라는 아직도 낯선 단어 앞에 첫 데뷔한 거라고나 할까요. 여러 명 중에 단역으로 등장하지만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동시에 부끄럽지요. 이제 첫 데뷔라나... 아직도 친정가족 중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나의 부족함에 혹은 맘이 앞서 덤비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서 더 멀어지게 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위축되기 일쑤였던 나. 그런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등장시키셨습니다.

내가 힘이 다 빠져 포기하다시피 하고 진심을 전했을 때 그 친구의 맘과 귀의 문이 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친구는 요즘 교회 예배당에 발을 처음 디딘 날 외엔 혼자 씩씩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들으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교인등록에 목장배정도 받아 목장생활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워해도 될 이유가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괜히 믿었다며 투정을 하는 그 친구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건 정말 놀랍고 기쁜 일입니다.

결혼식이나 아이들 돌잔치보다는 장례식장에 조문 갈 일이 많아지는 나이가 되다 보니 죽음 앞에서 불신자 구원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재대로 좀 수월하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날 여전히 연약하여 번번히 실패하는 그런 저에게도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전도폭발팀의 기도후원자로서 영혼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었지요. 그 열매가 지금, 아니면 1년 후 10년 후 아님 그 후가 될 지라도 반드시 이뤄내실 줄 믿으며 목직한 부담감과 기쁨으로 임하려 합니다.

아이를 가질 때에도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앞에 두고 철저히 나의 무능함을 느끼고 무너져 내렸던 그때에도 주님은 분주히 나를 빚어내는 작업 중이셨던 걸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곤 합니다. 창조주이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였기에 ‘나의 주님’이란 고백은 꽤 시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알아들으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등돌렸던 이 망나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작업 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어 날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분께서 오늘도 하나님이기애 가능한 신 일을 내게 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나의 뒤틀림은 집요하게 바로 잡아내고 계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말씀을 나누고 기도제목과 그 응답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일상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 많이 나누라 하십니다.



문득 길을 가다 겨우내 생명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돌처럼 서있던 나무의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와 화사한 꽃잎들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스쳐 지나갔던 봄이 어김없이 그리고 치열하게 준비되고 있었구나 하고 그 뒤에 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수십 년의 봄을 지내오면서 스스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자문해 보고 부끄러움에 한 숨 한번 내쉬고 5년 전, 10년 전엔 저 나무들을 지나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돌이켜 봅니다.



일상이란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지탱되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분주하셨을까요?! 그런 연약한 저도 사용하시어 아름다운 계획을 이뤄내실 하나님을 만나니 오늘도 기쁨으로 맘이 채워집니다. 아이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 남편 직장의 구조조정... 그런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우릴 붙잡고 계신 주님을 더듬어 느끼며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 참 성실하신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분 때문에 오늘도 힘이 솟습니다. 탄천을 걸으며 나뉘던 수다가 결심이 되어 중등촌 목자로 헌신하게 된, 배울 게 많은 귀한 동생과 잠깐의 휴식이 길어지고 있었다가 결단하고 목자로 돌아간 자매목장의 친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부지런히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가장 급한 일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겠지요.

매년 피고 지는 꽃이라고 피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꽃을 보고 허무하다 덧없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미소를 던지고 문을 열어주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는 일상의 일들을 작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따스함을 모아 세상을 데울 수 있으니까요. **지구촌**

어린이지구 훈련과정을 시작하면서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어린이지구에서는 드림선교단, 비전스타트, 전도폭발, 어와나 클럽 어린이들이 훈련과정으로 신앙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대하며 훈련과정 어린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드림선교단 김태현 저는 드림선교단을 시작하고 난 뒤,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을 잘 전도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보니 저라도 그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돕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교회에 가서 장난치지 않으며, 기도 시간엔 기도 찬양 시간엔 찬양하는 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구촌**



비전스타트 수요반 전관서 비전스타트를 시작하면서 나는 뜻하지 않게 오른쪽 발목을 다쳐 수술을 해서 첫 시간부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것이다. 비전스타트에서는 TV, 게임, 컴퓨터 등을 하지 못하게 해 조금 답답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절제하는 법을 배우고 다 나아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여행을 가고 싶다. **지구촌**



비전스타트 토요일반 윤하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합니다♪

작년 2016년에도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비전스타트를 신청했습니다. 처음 몇 주 간은 적응되지 않아 아주 힘들었습니다. QT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번 2017년에도 비전스타트를 신청했습니다. 단기선교에서도 올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고, 기도로 준비 하고 있어요. 이번 에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에도 비전스타트를 통해 예수님과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더욱 뜻 깊은 비전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구촌**



어와나 클럽 수요반 최성은 저는 어와나를 시작한 지 4년째 됩니다. 처음 1학년 때는 어와나가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져다 해서 갔습니다. 일주일 중 수요일 저녁에 엄마랑 오빠랑 어딘

가를 간다는 것이 웬지 신이 났습니다. 어와나 전도사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암송, 게임, 예배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암송은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게임시간과 맛있는 간식, 친절한 목자님이 계셔서 싫지 않았 습니다. 단복도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어와나가 이제는 너무 좋습니다.

목자님 앞에서 암송을 하려면 떨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나 힘들기도 하지만, 싸인을 받고 상을 받으면 자 랑스럽고 참 뿌듯합니다. 목자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사탕을 건네주시면 힘들었던 생각은 모두 사라 집니다. 그리고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 셧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습니다.

게임을 할 때 전도사님은 주일에 봤던 전도사님과는 많이 다릅니다. 훨씬 재미있고, 신나고, 친하게 느껴 집 니다. 목자님들과 목청이 터져라 친구들을 응원하고 힘껏 달리고 나면 어느새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 혀 있고 스트레스가 풀려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게임을 힘들어 하는 친구를 혼내지 않고 어와나의 전도사님, 목자님, 언니, 오빠들이 모두 “끝까지! 끝까지!”하며 응원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나게 어와나를 마치고 나면 참 배가 많이 고포는데, 그때 주시는 간식은 참으로 꿀맛입니다. 오늘은 어떤 간식이 나올까 늘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와나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촌**



어와나 클럽 토요일 송영빈 드디어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와나(AWANA)가 개강되었습니다. 어와나를 올해도 6년째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리고 티앤티 과정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되는 새로운 말씀 암송 교재를 시작하게 되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와 말씀을 알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말씀을 암송해 나가면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암송한 요한복음 17장 17절b: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더욱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해주는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생활이 많이 바쁘겠지만, 성실히 QT를 하면서, 그리고 더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6학년 생활을 하겠습니다. 어와나 친구들, 파이팅!!! **지구촌**



어린이 전도폭발 백민하 어린이 전도폭발을 시작하면서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지 어린이 전도폭발에서 복음 전문을 외우고 전도의 방법을 배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말을 잘 건넬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또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걱정과 달리 어린이 전도폭발이 끝나면 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폭발에서 복음 전문을 잘 외우고 전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 있도록 어린이 전도폭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구촌**



The Lord's Call to Korea 한국으로 부르신 주님

Katherine Getchell (캐서린 게첼) | 영어예배부



On a short term mission trip to South Korea,
I heard God's call back to Him and to missions.
제가 한국에 단기선교여행을 왔을 때,
하나님은 주님께로 그리고 선교를 품은 어릴 때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Hello, my name is Katherine Getchell. I have been attending the English ministry here at Global Mission Church for almost 2 years. I work as a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 at Lovebridge Christian School in Seongnam. It's a wonderful privilege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what God has done in my life.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게첼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 영어예배부에 다닌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러브릿지 크리스천 스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일하신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I accepted Christ when I was five years old, and I grew up in a loving Christian home. In elementary school, I loved God with a simple love and I wanted to be a missionary, but in middle school I became more focused on academics and worldly accolades than on God.

저는 5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주 순수했고,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에는 하나님보다 공부와 세상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summer of 2010, when I was 18, I went on a short term mission trip to South Korea. On that trip, I heard God's call back to Him and to missions. I'd become distracted, but God stepped in to change the course of my life. For the next four summers, the Lord led me to return to South Korea and when I graduated college in 2015, I could finally stay.

2010년 여름, 제가 18살 때, 한국으로 단기선교여행을 왔었습니다. 그 선교여행 중에 하나님은 주님께로 그리고 선교를 품은 어릴 때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성장하면서 주님과와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쏟았지만, 주님께서는 저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저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 후 4년 동안 주님께서는 저를 계속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저는 201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In the states, people ask me "Why do you go to South Korea? The church is strong, they don't need you." And I can't argue with that. Here people ask me, "Why are you here? Don't you miss your family? Isn't it hard?" And I can't argue with that either.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저에게 종종 묻습니다. "왜 한국에 가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왜 여기에 있니? 미국에 있는 가족이 그리지 않니? 여기에서 지내는 거 힘들지 않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I have only one answer I can give. God has placed a passion in my heart for Korea, a love for Korean people that I can't explain. I feel with the Apostle Paul when he said, "For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since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1 Corinthians 9:16). I am under compulsion to be here, and to work alongside you in sharing the gospel. I believe Koreans are uniquely equipped by God to make a global impact for Christ, and it is my joy to be a part of what God is doing here in South Korea.

저는 오직 한 가지 답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국을 품고, 한국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했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한국인들을 특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고, 예수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한국에서 행하시는 일에 저를 포함시켜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It is my joy to be a part of what
God is doing here in South Korea.

주님이 한국에서 행하시는 일에
저를 포함시켜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Right now, my part is teaching and loving my students, and serving through the GEM ministry. Recently, God has been teaching me about contentment; my instinct is to seek the goal, to wonder what God has planned for the future and how I can be striving towards that now. But the Lord has convicted me to instead be striving towards Him, and I'm realizing that it is through our humble daily routines that God is molding us into the image of Christ. It is my joy to be a part of this church family, and to grow alongside each of you in the knowledge and love of our great God.

지금 저의 역할은 영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예배부를 통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지금에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표와 일을 위해 열심을 쏟는 대신에 주님께 열심을 쏟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빛으시는 과정은 매일의 반복되는 누추한 일상을 통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 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Worship Guide

Ask any questions on **English Worship Service** to Global cell group center.
031-710-5924

예배안내

영어 예배부에 대한 문의는 글로벌목장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T. 031-710-5924
지구촌 선교센터(MD프라자) 8층 805호

죽전고등학교 큐티클랜을 소개합니다

황주연 | 분당채플 10시 고등마을 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죽전고등학교 큐티클랜(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는 작은 모임)을 섬기고 있는 3학년 황주연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큐티클랜을 섬기겠다는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큐티클랜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수월할 줄 알았던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임 장소부터 미땅치 않았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에서 두 세 명이 추위에 떨며 모여 손에 큐티 책 하나만 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장소 외에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족함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도제목이 있을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즉각 응답해 주심으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며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전고 큐티클랜 모임은 일주일에 월,수,금요일 3회 점심시간에 모입니다. 월요일에는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에 배 때 들은 말씀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리는 것, 결단 하는 것을 나눕니다. 수요일엔 큐티 본문 말씀을 읽고 자신이 만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주간 만난 하나님과 각각의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큐티클랜 모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친구들의 하나님 그리고 큐티클랜에 참석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 소수의 인원이 큐티모임을 가졌을 뿐인데, 이를 보고 숨어있던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혹시 자기도 큐티클랜에 가도 되겠냐며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큐티클랜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도 늘어났고, 날로날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간증들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중심에 새싹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지는 삶을 사는 친구들을 보며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우르르 몰려가는 이 큐티클랜 모임을 궁금해 하며 함께 참석하게 하였고, 그들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동적이라며 눈물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얼마나 크지가 저희 안에 넘쳐 흘러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큐티클랜을 통해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결단 할 수 있음에, 넘어져도 붙여주신 옆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의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친구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큐티클랜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중고등학교도 큐티클랜을 통해서 잇을 수 없는 하나님과 그리고 동역자들과의 추억이 쌓이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전고 큐티클랜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귀한 죽전고 큐티클랜 친구들이 고맙고 사랑해! **지구촌**

복음을 전하는 기쁨

만병은 | 14캠퍼스



하나님을 만나 삶이 바뀌고 나서 이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제게 정말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XEE라는 대학지구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훈련생, 훈련자 두 단계의 훈련을 통해 전도에 대해 조금은 쉽게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XEE전문을 암기하고 나니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정말 가깝고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나지 않아 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의도하지 않은 장소에서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신기한 것은 생각보다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친구들을 보면서 전도가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가장 중요한 전도대상자 중 한명은 저의 언니였습니다. 훈련생 시절 개인전도를 하였으나 집에서 너무 편하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흐름도 끊기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팀 전도를 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XEE 훈련자가 되어 다시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언니의 성격상 XEE를 듣겠다고 시간을 내줄 사람이 절대 아니였고, 게다가 당시에 언니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더욱 더 시간을 내기 힘들었습니다. 몇 번 물어보긴 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너 또 선생님은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이거 할라 그러지?” “안 가!”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훈련생과 함께 노방을 나가자고 약속한 날에 강의도중 언니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근처 카페에 있다고. 그때 갑자기 언니에게 XEE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노방을 취소하고 언니에게 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언니는 여러가지의 반대의견과 함께 결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거야?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먹힐 것 같은데 나처럼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별로인 것 같아... 공감도 안되고” 라는 말과 함께 그날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자
저의 입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저의 훈련생이 생각이 난다고... 그 친구가 말한 간증이 생각난다고... 자신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언니가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언니가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고 싶어하지 않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름 믿어보려고 하기는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 울컥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언니에게도 찾아가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언니를 위해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언니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언니는 "정말 내가 믿어야 한다면 내가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신이 찾아와 주겠지"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언니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 언니를 만나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복음을 전해야 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자 저의 입을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더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말 저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복음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도 축복이지만 전하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 것을 보면서 은혜를 얻고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전도로 전도 대상자들이 결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결신하지 않더라도 언제가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싹이 틀 것입니다. **지구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구촌교회 청년1지구 사회봉사부

안녕하세요. 지구촌교회 가족 여러분~ 추운 날씨가 점차 누그러지고 꽃피는 새봄 4월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4개월 차가 되었는데 새해에 계획하신 일과 목표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너는? 이라고 되물으신다면 '다른 것들은 지켜지고 있지 않아도 한 가지는 잘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봉사에 즐거이 참여하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몸 불편한 곳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봉사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보람됨을 느꼈으며, 봉사자들과의 교제 속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봉사하는 현장에서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며 함께하는 것에 감동을 느끼며, 행복이 배가 됨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저처럼 새해 계획에 봉사를 적어놓으신 분들과 그 외 여러분께 사회봉사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2시 306호 어울림 방에 모여 둘째 주에는 경동원, 넷째 주에는 에덴의 집을 찾아갑니다. 2시간의 봉사가 진행되며 오후 6시 안으로 교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굳이 사회봉사부에 가입하지 않아도 봉사에는 언제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촌의 목자나 전도사님께 참여의사를 알려주시면 부장이 연락드려 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혼자 가기가 염려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받는 은혜가 상당하며 봉사 후 드는 생각들을 나누다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혼자 외로울 거란 마음 버리고 찾아오시면 마음 따뜻하고 사람 챙기기 좋아하는 오지라퍼 봉사부원들이 눈망울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고 그래도 축스럽다하시면 부장의 프슈 픽업도 가능합니다^^

현재 가고 있는 봉사 장소를 말씀드리면 매월 둘째 주에 가는 경동원은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으며 부모님의 부재 또는 부모님의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취학 전 영유아들을 보호, 양육하는 기관으로 선생님을 엄마라고 부르며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영유아 돌보기, 취사실 보조, 시설물 유지 및 보수, 환경미화 등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경동원의 필요에 따라 부탁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영유아를 돌봄과 취사실 보조 봉사활동 진행 시에는 영유아 감염 질환 예방 및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보건증' 또는 '건강검진서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으면 사랑스런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준비해주세요.

처음 봉사를 가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주고 부모의 빈자리를 위로해주고 선생님들 힘드시니 내가 놀아주고 와야지’ 하지만 막상 가면 내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아 옵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고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하실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매월 넷째 주에 가는 에덴의 집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서 가족의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사회에서 소외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남자들은 1층, 여자들은 2층에 거주하며 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는 곳입니다.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많은 분이 무섭고 힘들 것이라는 편견과 오해를 하시는데 발달과정에서 지적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멈춘 것으로 몸은 성인이지만 지적능력은 3세에서 15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와 조금 다를 뿐 모두 아기같이 순수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랍니다. 아기들 처럼 노래도 춤도 음식도 좋아하고 별일 아닌 걸로 빠지고 이르고 자신의 이야기 하길 좋아하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웃어주는 착한 분들과 있으면 나도 순수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즐거운 곳이라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많은 봉사자가 다녀감에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며 다음에 올 날을 미리 알아 알려주고 다음에 꼭 오라고 이야기하며 웃는 에덴의 집 식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3월 25일에는 금광중학교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초코파이와 오렌지주스를 간식으로 먹기로 식구들과 이야기하며 정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정을 함께 느끼며 함께 하실 봉사자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롬 11:29)

한 달에 한 두 번 2시간의 작은 섬김으로 큰 기쁨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많은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과 나누는 손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봄 4월~ 봉사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구촌**



소리 없이 흐르는 주님의 향기 호스피스사역팀

민기숙 | 서울대 병원 봉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한 사람에게 생기와 복을 주신 후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한 주간의 정해진 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봉사를 갑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간호사님이 그날 섬기게 될 환우 분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각각 환우들에 대한 브리핑이 끝난 후에는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챙겨 환우 분들을 찾아가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통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개운해 하시며 희미한 미소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할 때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나오면서 가슴 속으로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지요라는 고백이 나올 때면 호스피스의 봉사가 얼마나 나 자신을 행복하고 감사하며 때로는 인생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호스피스 봉사는 이곳 외에도 7개의 지역사회 병원들과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암케어 팀(가정방문) 에제르 목장 등 10여 곳에서 환우분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기관 정서에 따라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며 기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환우분에게 다가가 접촉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을 떠올리며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봉사의 기회가 더 소중합니다.

지구촌교회 호스피스사역은 2000년 3월 호스피스교육세미나 1기로 시작되어 올해로 벌써 18기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수강생이 신청하여 현재 세미나 진행 중입니다.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 곳이 인근에

없는 터라 타교인들이 먼 곳에서 오기도 합니다.

호스피스는 흔히 '임종을 앞둔 환자와 함께 하는 일'이라는 선입견으로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호스피스 하반기 교육에서 강사로 오신 송길원 목사님의 "삶이 죽음에 말을 걸다" 강의 중에서 삶과 죽음의 글자 사이는 불과 1센티라는 역설적인 유머에 웃었는데 죽음이란 단어는 삶이란 단어에 따라오는 비유는 필연적이기에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 아는 것 세 가지

“반드시 죽는다,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세 가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세미나교육 중에는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의학상식이나 건강정보도 배우게 되어 미리 건강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두 달 동안 진행되는 8번의 강의에 참석하여 수학하면 교육을 수료하게 되는데 동시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봉사자로 지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구촌교회 호스피스 교육 수료자는 이번 수료자 포함 824명이 배출되었고 현재 봉사하고 있는 기관은 수원기독교 병원, 하워드힐병원, 러스크병원, 보바스일반병동, 보바스 완화병동, 보바스헤리티지, 분당서울대병원, 지구촌노인복지센터, 가정사역 2팀 에제르목장 등이 있습니다. 병원 사정이나 기관에 따라 사역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호스피스팀은 말기 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 투병과 간병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잘 극복하고 수용하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자 합니다. 환우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영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경제적 보살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며 남겨진 가족의 슬픔에 동참하며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탭니다.



호스피스 팀의 장기적 비전은 전문 사역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 호스피스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사회 내 더 많은 암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단기적 비전은 병원방문 봉사에서 가정 호스피스 방문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가정 호스피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행사가 있는데 작은 행사로는 분기별 강사를 초청하여 모든 교인이 다 들어도 좋을 내용의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나 실제로 발 마사지를 배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큰 행사로는 봄에는 ‘암 환우의 밤’이라는 표제로 작음 음악회를 진행하여 환우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마지막에는 목사님들과 뜨겁게 기도하여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한, 매년 가을에는 ‘에제르캠프’가 2박 3일 동안 필그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환우들에게 봉사자들이 일대일로 동행하여 섬기고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지상에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여행은 살면서 다닌 그 어느 여행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아직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참 자유를 얻고 진정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은혜의 눈물의 고백과 마음의 평안을 갖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내 봉사의 자리는 자신의 달란트로 혹은 헌신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들이 넘쳐납니다. 이곳 저곳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랜 기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에 감동하고 도전받아 자신도 어느새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호스피스팀도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헌신과 섬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구촌





특집

복음에 예외는 없다

하정식 기자

길을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한 상처를 입었다.

신앙심이 깊은 두 사람, 사제와 레위인은 모른 채하며 지나쳐버린다.

그때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라면서 돈까지 준다. 예수는 이야기를 마치고 물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나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는 다시 말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10:25-37)**

지구촌교회 사회복지부 소속의 아람학교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로 지적, 자폐성장애,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연령에 맞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청년2, 수지 연합마을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더 나아가 대상자들의 사회성을 향상 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담당하고 있다. “아람”이라는 뜻과 의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생생한 현장에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다가가 보자. **지구촌**

성경에 나타난 장애인관

유명은 목사 | 사회복지부



성경에는 장애인에 관한 표현이나 내용이 무려 160회나 기술돼 있다.

구약에는 89회, 신약은 71회에 이르는데 구약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표현은 주로 죄의 댓가, 무능력자, 저주 등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주관하신다고 여겨 질병은 **‘죄에 대한 심판’**이나 **‘저주’**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성경저자를 통해 표현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언서로 넘어가면서는 조금씩 인식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소망하는 가운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포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었다. 특히 신약에서는 장애인을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눅 4:18)**를 위해 자신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성경 구절들은 교회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성경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드러난 장애인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자.

1. 구약성경에 드러난 장애인관

구약 성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존재로 묘사한 기록이다.

둘째, 장애인을 부정한 존재 혹은 불완전한 존재로 묘사한 기록이다.

셋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한 기록이다.

넷째, 장애인을 회복의 대상으로 묘사한 기록이다.

다섯째, 장애인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한 기록이다.

1) 장애인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존재로 묘사

장애인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존재로 묘사한 기록은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소돔 성 사람들이 롯을 방문한 천사들을 대적할 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사건(창 19:11)과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 사람의 눈이 어둡게 된 사건(왕하 6:18)은 시각 장애를 하나님의 형벌과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벌을 예고하실 때 병과 재앙과 육체적인 ‘장애’가 포함되었다(신 28:20-68; 레 26:14-26). 특히 신명기와 레위기의 기록은 개인적인 죄악으로 인해 장애보다는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인한 장애의 발생을 강조하고 있다.

2) 장애인을 부정한 존재 혹은 불완전한 존재로 묘사한 기록

구약 성경에는 장애가 특별한 사역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애인을 불완전한 존재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장애인은 흠이 있는 존재이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성소 출입은 성소를 더럽힌다고 표현하고 있다(레 21:17-23).

이러한 표현은 ‘장애=부정(不淨)’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장애를 ‘부정(不淨)’로 여기는 인식은 정결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유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규례는 ‘모세법’이지만 그중에서도 정결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는 근본이 되었다.

3)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묘사한 기록

“너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 3:8)

“너는 귀머슴을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4)

이러한 구절들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 명령을 담고 있는 기록이다. 장애인에 대한 보호 명령은 특별한 선행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삶의 의무로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신 27:18)*라는 구절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 명령을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규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4) 장애인을 회복의 대상으로 묘사한 기록

장애인을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회복되는 존재로 묘사하는 기록들이 있다. 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기록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서 많이 나타난다(사 29:18; 32:4; 35:5, 6; 42:7). 특히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 대망 사상과 결부되어 ‘그 날’(혹은 ‘그 때’)에 장애인들이 장애로부터 회복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장애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인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앞의 세가지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5) 장애인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서술한 기록

예레미야 31장 8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을 복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라고 말하고 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두 가지 면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폐하신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내산 언약(출 19:3-6)을 통해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존재로 인식한 맹인(“소경”)과 지체장애인(“절뚝발이”),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 등과 같은 “남은 자”(렘 31:7)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실 것이라는 예언은 미가와 스바냐의 예언에서 나타난다(미 4:6-7; 습 3:9).

2. 신약 성경의 장애인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장애인에 대한 자료는 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포함된 장애인관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1) 마태복음의 장애인관

마태복음의 장애인에 대한 기록은 주로 ‘천국복음’의 선포의 결과로써 장애인 치유사역을 다루고 있다.

4장 23-25절과 9장 35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천국 복음사역’으로 묘사한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4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특히 ‘그 나라의 복음’(4:23; 9:35)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구절로써, 이는 아마도 메시아적 구절인 이사야 52장 7절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복음의 선포와 장애인 치유를 함께 병행하시며 5-7장의 소위 ‘산상설교’와 8장-9장 34절의 이적 기사들을 통해 천국복음 선포의 필연적인 결과로써 장애인의 치유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 결국 예수님의 장애인 치유 사역은 그의 사역의 수단이나 부수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현상이자 결과였음을 말씀하고 있다. 즉 사단의 통치 하에서 영적, 육적으로 얽매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에 반응하는 자들을 그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한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육체적, 영적 질병들의 치유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마가복음의 장애인관

마가복음의 장애인관은 주로 정결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 장애인을 부정(不淨)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그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였다. 하지만 마가는 (외형적 규례로서의) 정결법의 폐지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비판한다. 한 나병환자의 치유기사(막 1:40-44; 마 8:2-3; 눅 5:13-17)의 경우, 장애인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 왔다(41절). 당시 나병환자는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어서 일반인과 접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레 13:45-46). 하지만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그를 고쳐주신다(41-42절).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를 위해 당시의 ‘정결 규례를 어기신 것이다. **“깨끗함을 받으라”(41절)**는 표현은 정결법에 의해 문둥병이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신 말씀으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정결법을 어겼고 문둥병자를 회복시킴으로 ‘부정한 자의 정결케 됨’이라는 정결법의 정신을 회복시키셨다.

3) 누가복음의 장애인관

누가는 장애인 치유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가복음에만 포함된 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눅 13:10-17; 17: 11-19).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려 허리를 펴지 못한 한 여인'을 치유한 사건의 경우(눅 13:10-17), 치유받은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치신 사건(눅 17:11-19)에서도 치유받은 자 중 한 명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서술하고 있다.(15절), 예수님께서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18절)라는 말씀을 통해 장애인이 회복됨으로써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4) 요한복음의 장애인관

요한복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애인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죄악으로 이해하였고, 부모의 죄악이 자녀들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하였다(요 9:2).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장애를 공동체적 책임으로 묘사한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록들은 예수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인의 죄악으로 인해 장애인이 된다는 시대적 인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요 9:3)과 장애인을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결국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요 9:39). 세상에 대한 심판은 첫째, 육체적 장애인을 치유하고 둘째, 영적으로 무지한 일반인들을 육체적인 장애인으로 만드는 형태로 나타난다(요 9:39). 하지만 복음서에는 후자의 경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장애인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일반적인 형태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을 강조한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장애인들을 치유하심으로 차별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영적인 장애인들(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다양한 시각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결론을 품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며 대해야 할지를 잘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며 예수님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계명과 복음의 핵심으로 가르치셨고 그대로 실천하셨다(막 10:45, 눅 22:27). 또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을 **‘디아코니아’** 즉, **‘봉사’**를 말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로 분류되는 장애인 복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지구촌**

복음에 예외는 없다!

사회복지부 아름학교

우리 아름학교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지체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 복음을 배우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들로 구성된 주일학교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처럼 아름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려하여 최대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아름이라는 뜻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돌레란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재 아름학교는 장애학생 181명과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목자 123명으로 구성되어 일대일 양육의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어 학생이 가진 어려움이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학교의 발전

1999년 수지 채플에서 작은 모음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각 연령층을 고려하여 분당 채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1, 청년2마을로 나누어져 예배와 공과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지 채플에서는 연합마을의 형태로 모든 연령대의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목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름학교 프로그램 소개

현재 아름학교에서는 주일예배를 분당, 수지양 채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장애 성인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주중 모임을 진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적응기술을 돕기 위하여 주말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장애 학생들의 삶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물리적, 신체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 겪는 많은 어려움은 더 큰 절망으로만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아람학교는 지금 너무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편하게 지내는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서는 편견도, 미움도, 아픔도, 장애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아람학교 가족들이 지구촌교회에서 미리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가진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께서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천국을 함께 꿈꾸는 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장애학생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양육이 가장 효과적인데 현재 학생의 숫자보다 목자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목자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아름, 내 안의 작은 천국

장동진목자 | 수지아름연합마을



“에구, 힘든 봉사하시네요~! 힘내세요!” 지적장애인의 주일성수 및 영적 성장을 돕는 지구촌교회 아름학교에서 지난 2년간 봉사하면서 주위에서 자주 듣는 응원의 메시지에 내 대답은 항상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건 별로 없고요,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죠! 그 은혜가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한 번 직접 오세요!”

2017년 3월12일. 오늘도 지구촌교회 수지채플 202호에서는 소란스러운 찬양과 결코 집중할 수 없는 전도사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의 예배시간이죠. 수지채플의 아름은 초등학교 자폐아부터 60세 다운중후군 어르신까지 약 40여 명의 지적장애인을 두루 아우르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시간이 혼잡스러운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시끌벅적한 아름이지만 아주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를 먼저 건네는 얼굴엔 서로 그리웠던 표정밖에는 보이지 않고, 목에 핏줄을 세우며 찬양하는 얼굴엔 이미 세상의 걱정근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 말씀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아멘”에는 구원에 대한 의심은 티끌만큼도 찾을 수 없고, 기도마다 모은 두 손으로 전해지는 진심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전해집니다.

항상 느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끌벅적한 아름의 예배를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끗한 영혼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닐까요?

예배를 마치고 내 눈을 바라보며 잔잔히 한마디 합니다, “목자님~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다 돼 내가 기도해 줄게.”

“어! 나는 왜 고민하고 걱정하는가? 기도하지도 않고~” “아름의 천사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 근처의 작은 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 중 8복에서 가장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영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여 의지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아름에게 이처럼 천국을 주시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나의 자만과 욕심을 버리고 아름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송민영 | 농아인예배부



안녕하세요. 제가 지구촌교회 농아부에 다닌 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갑니다. 먼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열병으로 인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시대는 소음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는 후천적 청각장애가 늘어나고 있지만, 옛날에는 열병으로 인한 후천적 청각장애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을 직접 들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20대에 들어와서야 농인교회와 농인부가 있는 교회가 많이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통역도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아주 먼 위치에 있었습니다. 20대의 청춘시기를 한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3년 전, 30대 들어서던 때에 친한 지인으로부터 매일성경이라는 큐티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지인들과 큐티책으로 함께 묵상하고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1회씩 참석하는 큐티모임을 통해 운명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큐티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서로 그날 받은 말씀과 삶을 나누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주일예배를 수화로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농인교회가 있었지만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와 농인들을 위한 수화, 문자통역도 잘 되어있지 않아서 꾸준히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촌교회 수지채플에 다니고 있는 친언니로부터 작년 7월에 지구촌교회 분당채플에도 농아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와 함께 그 농아부에 다녀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해 가을 즈음 친언니와 함께 농아부를 구경하러 지구촌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농아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농아부 성도들과의 인연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수화통역을 통해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수화통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으며 감동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농인들과 청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집 가까운 곳에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점이 제 마음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구촌교회 농아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농아부 담당 목사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 농아부가 맺을 열매는 더욱 풍성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통해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꾸준히 성장해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농인들 모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나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합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참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구촌**



**아름학교를 다니면서
이럴 때 가장 기뻐요!!**

- 공과 시간이 가장 기뻐요.
- 좋은 신앙 친구를 만났을 때 기뻐어요.
-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기뻐요.
- 목자들의 헌신 때문에 기뻐요.
-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가장 기뻐요.
- 찬양할 때 기뻐요.
- 생일파티 할 때 기뻐요.
- 선생님과 간식 먹을 때 기뻐요.
- 친구들과 만날 때 기뻐요.
- 목자님 만나서 예배드릴 때 기뻐요.
- 아름 소풍갈 때 기뻐요.
- 기도할 때 기뻐요.
- 윗놀이 할 때 기뻐요.
- 캠프에 갈 때 기뻐요.
- 영화 볼 때 기뻐요.
- 목자님이 심방 올 때 기뻐요.
- 목자님이 많이 사랑해 주어서 기뻐요.
- 헌금 낼 때 기뻐요.
- 공과 시간 스티커 붙일 때 기뻐요.
- 건강하게 해 주실 때 기뻐요.
- 드럼 칠 때 기뻐요.
- 목자님과 목원이 함께 할 때 기뻐요.
- 예수님 말씀이 가장 기뻐요.



-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못 알아 줄 때 슬퍼요.
- 목자님들이 목자 그만 둘 때 슬퍼요.
-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볼 때 슬퍼요.
- 목자님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슬퍼요.
- 교회 못 올 때 슬퍼요.
- 간식이 맛 없을 때 슬퍼요.
-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낄 때 슬퍼요.
- 안 슬퍼요.
- 목자님께 혼날 때 슬퍼요.
-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지 못할 때 슬퍼요.
-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슬퍼요.
- 친한 친구가 교회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슬퍼요.
- 열린예배 활동 시간에 패배 했을 때 슬퍼요.
- 아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때 슬퍼요.
- 예배 시간에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 스럽게 하는 친구들 때문에 슬퍼요.
- 화장실 이용할 때 가장 슬퍼요
- 부모님이 못 데려다 줄 때
- 다른 사람들이 눈물 흘릴 때, 헤어질 때
- 주변에서 시끄럽게 할 때
- 좋아하는 목자님 볼 수 없을 때
- 공과 공부 안할 때 가장 슬퍼요.



**아름학교를 다니면서
이럴 때 가장 슬퍼요!!**

내 마음의 사랑 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먼저 사랑으로 남에게 대접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실천으로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지금 나의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지 질문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1. 남과 나를 하나로 생각한다.

예 아니오

마25:35-40, 눅10:25-37

2. 남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를 준다.

예 아니오

갈5:16-26; 엡5:15-18

3. 진심으로 남을 배려한다.

예 아니오

빌22-3

4.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예 아니오

잠16:1-9; 골3:22-23

5.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한다.

예 아니오

수18; 시119:11; 딤후3:16; 히4:12

6. 옳은 것들은 실천하려 노력한다.

예 아니오

대하7:14; 롬12:1-2

저는 아픔의 목자입니다.

박정순 마을장 | 아픔 청소년 마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근심하며 답했듯 저의 대답도 같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못한 성품으로 또 제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아픔의 목자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지난 주일 아픔 예배시간에 아이들과 힘차게 부른 새로 배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 아픔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욱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아픔 목자들은 온전히 더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심으로 아픔이들이 하나님을 알아 가며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달 말씀 암송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하는 찬양 인도 목자님의 물음에
“잠깐만요. 목자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며 말씀을 암송하는 아픔이도 있고
노트에 말씀을 써오는 아픔이도 있고 엄마가 불러주는 말씀 찬양을 듣고 오는 아픔이도 있습니다.

주일 아픔 예배 때마다 아픔 목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꼭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요.”

반복하고 반복하며 그 아픔이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어머니,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마을장님, 우리 아이와 한날한시에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를 놓고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주님. 오직 우리의 도움은 주님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름 어머니들과 함께 날마다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는 아름 부모님의 단체 대화방은 은혜의 말씀과 감사로 넘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한 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기뻐 춤추며 뛰놀고 있는 우리 아람이들과 함께 주님을 뵈오며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아람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기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저는 아람의 목자입니다. **지구촌**

장애인을 위한 예배 안내

시간	예배		장소	
10:00	아름	청년1	분당	105호
		청년2		106호
12:00	아름	청소년	분당	105호
		어린이		106호
		연합마을	수지	202호
수화통역 (영상)				
14:00	수화통역 (분당/수지 채플 분당)			
15:30	농아부	분당	106호	

아름학교 목자모집

내용 매 주일 예배 섬김, 성경공부, 목원 심방 및 돌봄

담당자 김용성 전도사

문의 031-710-9312

뜨랑슈아 베이커리를 찾아서 - 김성지, 공현우

* 뜨랑슈아는 함께 빵을 나누어 먹는 친구사이란 뜻입니다.

Q1. 자기소개

김성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성지입니다. 올해 32살이 되었고요, 지금 사는 곳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막내 이쁜이라는 강아지와 저 이렇게 5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공현우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부터 뜨랑슈아에서 일하고 있는 25살 공현우입니다. 지금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살고 있고요, 부모님과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의 취미생활은 음악듣기, 노래 부르기입니다. 퇴근할 때 음악을 들으면서 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Q2. 뜨랑슈아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김성지 뜨랑슈아에서 일하기전에 복직관 직업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일반회사에 취업하여 조립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길게 한건 아니었는데 친구를 통해 우연히 아름학교를 알게 되었고 지구촌보호작업장 초기멤버로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7년 넘게 다니고 있네요.

공현우 학교 졸업하고 엄마 손에 이끌려 뜨랑슈아 면접을 보게 되었던 게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Q3.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은?

김성지 저는 포장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제 역할은 빵이 구워져 나오면 빵을 포장하고 납품업체별로 제품을 박스에 담는 일과 빵을 포장할 때 실링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현우 저의 주 역할은 시몬카스테라 계량과 반죽, 파이롤러 기계정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주특기는 오징어먹물빵, 시금치빵을 만들 때 하는 공굴리기입니다. 다른 동료나 선생님들보다도 엄청 빠른 속도로 공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Q4.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김성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선생님과 동료들과 대학로에 가서 연극 '라이어'를 보고 인사동 카페거리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처음 봤던 연극이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선생님께 정보를 받아 남자친구와 한 번 더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봤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공현우 좋았던 일과 힘들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았던 일은 삼성전자봉사팀이 와서 함께 빵도 만들고 에버랜드에 갔던 일입니다. 그때 봉사자들과 많이 친해져서 '형'이라고 부르고 서로 연락도 했었는데 지금은 회사가 바빠서 봉사가 끝나 너무 아쉽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호두파이를 많이 생산했던 것입니다. 명절마다 지구촌교회에서 호두파이 특별판매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매일같이 엄청난 호두파이를 생산

했는데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만든 호두파이를 사가시고 맛있다고 이야기해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Q5. 프랑슈아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김성지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가장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선생님들이 저를 이해해주시고 부족한 면들을 잘 받아주셔서 좋습니다.

공현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일찍 퇴근하는 것입니다. 저는 4시에서 4시 30분이면 퇴근합니다. 물론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남들보다 일찍 퇴근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 좋습니다. 혼자 있는 거를 너무 싫어해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면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좋습니다.

Q6. 프랑슈아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예전보다 성장했다고 느끼는가?

김성지 예전보다 생각하는 게 많이 변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없이 '나 하나쯤 빠저도 상관없겠지'라는 마음으로 일해서 힘든 일도 하기 싫고 집에서 쉬고 싶어 관두겠다고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 일과 집안일을 하며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며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철이 들어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동료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을 때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맡은 일에 대해 '나의 일'이라는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공현우 빵 반죽을 믹서기에 돌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프랑슈아에서 일하기 전에는 돈도 안 벌고 빵도 만들 줄 몰랐는데 지금은 통장에 월급도 쌓이고 빵도 많이 만들 줄 아는 걸 보면 많이 성장한 거 같습니다.

Q7. 앞으로의 계획은?

김성지 저는 프랑슈아에서 일하면서 포장팀 반장이 되어 동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랑슈아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2년째 연애중입니다. 자상하고 정직하고 순진한 면에 반해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남자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지구촌**

공현우 부모님께서 제가 프랑슈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친척들, 교회 목사님이나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빵 잘 만들고 있어? 한번 맛 보여줘야지'라고 이야기 할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앞으로 빵기술을 계속 배워서 혼자 만들 수 있는 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촌**

프랑슈아 소개

프랑슈아는 빵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빵을 만드는 곳입니다. 양 채플 프랑슈아 사역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 착한소비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한
또 다른 배려의 공간입니다.
안전하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확인해 주세요.

엘레베이터 앞에 우두커니 서 있거나 서성이는 장애인을
만나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먼저 도와주세요.

그들이 잘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대해주세요.



휠체어를 타거나 키가 작은 지체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시선을 맞추고 대화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장애인을 만나면
가급적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해 주세요.

도움을 주려는 경우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꼭 물어봐 주세요.

쉬운 단어로 된 짧은 문장을
천천히 말해 주세요.
말을 들을 때는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가슴 부듯한 감동과 은혜를

김두현 장로 | 분당3지구 축복의땅 목장



오래 전에 영성훈련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서로 어린아이들처럼 즐거워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축복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모습들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허깅(포옹)하며 처음 간 저를 기쁘게 맞이해주고 축복하며 허깅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가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이론이 아닌) 사건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감격이 오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면서 가슴 뛰는 기쁨과 감동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날마다 기쁘고 은혜로운 곳이겠구나!' 라는 실감이 나면서,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후, 저희 부부는 부부수련회를 섬기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시하여 전문가들을 미리 예비하셨으며, 정말 놀랄 만큼 멋지고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가 계기가 되어 회원들의 얼굴에 은혜가 넘쳤으며 교회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들이 늘어났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부부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기뻐하며 환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상처가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걸 보면서, 저희는 참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참가자들을 변화시켜주시는, 가슴 뛰는 놀라운 장면들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수련회들을 섬기며 기억나는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 이혼하기로 결정했던 한 젊은 부부가, 저희 부부가 인도하는 수련회에 잠시 참석하였다가 다시 결합하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 * 환갑이 다 되신 한 형제님은, 거의 30년 이상을, 일년 365일중에 350일을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를 1갑 이상 피웠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불과 2번 참석하시고 "술과 담배를 모두 끊었다"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언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부부가 다시 결합하라고 권한적도 없었고 또 술 담배를 끊으라고 권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직접 감동을 주셔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뿐입니다.

- * 한 집사님은 참가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잎드려 큰절을 하면서 “그동안 치매 걸린 시어미님을 모시게 해서 미안했다며,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용서해 달라”는 분도 계셨고
- *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새 성도님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분명이 뭐가 있다”고 부인에게 말하더라고요. 그 후부터 그들 부부의 믿음이 진지해졌습니다.
- * 어떤 집사님은, 주일에 일을 나갈 때는 교회를 가지 않았었는데, 수련회를 다녀온 후로는 새벽예배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성수주일을 지킨다며, 그 부인께서 기뻐하며 간증을 하셨습니다.
- * 어떤 분은 신혼 초의 첫사랑이 회복되었다며, 수련회장에서 당장 신방을 꾸며 달라고 조르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일일이 모두 기록할 수 없지만, 그러한 변화는 수련회에 참가하신 모든 가정에서 일어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기 시작한 부부수련회가 계기가 되어 1998년, 지구촌교회의 “부부사랑학교와 사랑의 순례” 1기를 섬기게 되었고 2기에 훈련생으로 참여하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함께 참여한 부부들이 모두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벌써 1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를 회상하면 감동이 새로워 잡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수련회장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어루만져주시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며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수련회를 여러 번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미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공학도인 제가 부부수련회 및 아버지학교를 인도하는 가정사역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보람된 일입니까?

하나님 덕분에, 가정을 refresh 해주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의 적극적 표현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를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아름답고 멋진 사역에 저희 부부가 함께 쓰임 받게 됨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부사랑학교와 사랑의 순례’기를 섬겼을 때, 훈련생으로 참여했던 한 자매님이 “저는 여태까지 섬긴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는데, 이번에 잘 배웠으니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마워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실, 남에게 은혜로운 섬김을 받아본 사람만이 겸손하게 남을 섬길 수 있으며 은혜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며 섬김을 받아보면 저절로 겸손해지며 은혜로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영성훈련이 여러 교회에서 운영되지만, 그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공감하며 은혜를 나누는 지구촌교회의 “부부사랑학교와 사랑의 순례”가 가장 은혜스럽고 감동이 크며 또 효과도 큰 프로그램으로, 지난 19년 동안 4기를 운영하며 LONG RUN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사랑학교’는 아내들이 더 수지맞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지구촌교회의 “부부사랑학교와 사랑의 순례”에 부부가 꼭 참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슴 뿌듯한 감동과 기쁨을 선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가정에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리프레쉬(refresh)되어 새롭게 회복됩니다.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기뻐하며 겸손하게 반겨주시는 섬김이들의 아름다운 동역과 귀한 섬김은, 귀하에게 잇을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드릴 겁니다. **지구촌**

미래를 준비하는 크리스천의 일하는 습관

이승한 장로 | 지구, 속명여대 재단 이사장



크리스천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피약별 아래서 벽돌을 쌓고 있는 세 명의 벽돌공에게 행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몰라요? 벽돌 쌓잖아요.” “돈벌고 있습니다.” 두 명의 벽돌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벽돌공의 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지금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일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주어진 각자의 일에 보람과 가치를 갖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

며, 주어진 일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요셉은 이집트왕의 꿈 해몽을 통해, 7년의 풍년이 7년의 흉년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를 예견하여, 풍년 기간 동안 식량을 잘 비축하여 지혜롭게 극심한 흉년을 극복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100년에 걸쳐 방주를 만들었고,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할까요? 시스코의 존 챔버스 회장은 10년 안에 현존하는 기업 중 40%가 사라지고,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47%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 불어오는 거대한 수퍼스톰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습관, 변기통(變基通)을 소개합니다.

變(변)

변화를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6가지의 거대한 변화의 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성장, 저수익, 저물가, 저소비가 정상으로 여겨지는 뉴노멀의 태풍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과 연결혁명으로 초현실사회가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의 태풍입니다. 세 번째는 의식주, 소비, 건강, 직장생활 등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스마트 라이프의 태풍입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시대에 다시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려는 자국우선주의의 태풍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량, 에너지, 수자원의 고갈이라는 태풍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극화의 심화로 새로운 자본주의 4.0이 요구되고 있는 태풍입니다.

변화는 곧 위기이며,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위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93년, 세기말적 변화의 시기에 삼성은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통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비유로 글로벌 2류, 3류였던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성공신화를 썼습니다. 최근에는 한 스타트업 기업이 전통적인 화훼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적으로 전환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조사 때 보내는 물품으로 인식되던 꽃 문화를 바꾸어, 저렴한 가격에 2주일마다 배송되는 ‘구독형 꽃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했습니다. 경조사 물품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꽃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보낸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은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개인은 생활 전반에 걸쳐 스마트라이프를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基(기)

기본에 충실하는 습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기업을 경영할 때도, 개인의 삶에서도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일의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도요타는 안전을 가치로 삼아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지나친 원가절감을 추구하면서 안전을 도외시하여 불량의 덩어리에 빠졌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다농은 건강이라는 회사의 목적에 맞게 비스킷 브랜드를 매각하고 사업군을 유제품, 생수, 유아식, 건강식품으로 재편하여 초일류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테너 조용갑은 권투선수에서 오페라 가수로 직업을 전환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든 인물입니다. 권투선수일 때는 얼굴이 크고 목이 두꺼워서 두드려 맞기만 했는데, 성악에서는 짧은 목이 아름다운 악기로 빛을 발한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도움을 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찢어진 우산도 함께 쓰고 갈 수 있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습관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기본을 뿌리내리면 거대한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通(통)

공감 소통 습관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60%는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와 의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자녀의 4%만이 아버지와 고민을 나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의 70%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원과 사원, 사원과 관리자, 사원과 임원, 사원과 CEO 관계로 갈수록 소통의 심리적 거리감이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이 거리감을 공감으로 끌어내는 4가지 소통의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목적과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가 지원하고 있는 UFCI 연합가족상담연구소의 방음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창문 공사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더니 정말 더 방음이 잘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진실과 사실로 소통해야 합니다.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소통은 카명 결국 사람들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셋째, 솔선수범 하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면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셨습니다. 넷째, 말하기 힘든 말을 할 때나 거대한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비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비유의 책입니다.

생각은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품성을 바꾸며, 품성은 운명을 바꾼다고 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변기통(變基通)의 습관이 각자가 바라는 아름다운 운명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



*편집자 주: 이 원고는 2017년 3월 19일 오후 4시 영구저지회 주관 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임

지구촌장학회 소개

지구촌 장학회는 민족치유 세상변화 3N 3G 비전 중 Godly Leaders 비전에 따라 기독교인으로서 학업의 열정과 소정의 자질을 갖춘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미래의 기독교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장학회의 비전 및 운영 철학으로는

- 1) 내일의 한국교회와 영적 리더 육성을 위한 인재발굴에 최선을 다합니다.
- 2) 경제사정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인 사고와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및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3) 미자립교회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기독교 리더로 육성합니다.
- 4) 미래 국가를 짊어지고 갈 훌륭한 인재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낌없는 투자로 미래 기독교 리더를 육성 배출합니다.

지구촌 장학회는 일반 지정, 특별 지정 장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정 장학금으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교회 내외 중·고·대학생 지원하는 느헤미야 장학금,

복음사도의 길을 걷는 신학생, 교육, 인턴 전도사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에스라 장학금, 탁월한 설교자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을 하는 목동장학금으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특별 지정 장학금으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학원비를 지원(중·고등)하는 Godly leaders 장학금, 선교사, 농어촌, 목회자, 군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디모테 장학금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희망날개 달아주기”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날개 달아주기”란 교회 내에 새터민 청소년,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는 청소년들에게 학원비 지원과 교회내의



대학생들의 과외지도를 실시하여 기독교 인재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2016년 지구촌 장학회에서는 교내 장학생 99명(대학생 56명, 고등학생, 13명, 중학생 4명, 외국인 대학생 6명, 전도사(파트/인턴) 20명), 대외 장학생 34명(신학대학/대학원생 9명, 대학생 25명) 총 133명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지구촌 장학회에서는 대외 장학생 31명(대학생 16명 중·고등학생 15명), 교내 장학생 82명(대학생 44명, 중·고등학생 22명, 전도사(인턴/교육) 16명) 총 1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촌 장학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구촌 장학회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장학사역으로 기도와 사랑, 물질적인 참여를 통하여 이 땅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사역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와 꿈을 포기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 그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2017 교육목자 아카데미

4월 1일 10시부터 15시30분까지 분당채플 본당 및 각 교육장에서 지구촌교회 및 동역교회 교육목자를 대상으로 2017 교육목자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한웅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찬양에 이어 진재혁 담임목사님의 '목자의 영성' 주제 말씀에 이어 각 교육장별로 진행된 선택강의 시간에는 김소단 강사, 최주희 사모, 유경상 대표, 이태희 목사, 김해동 대표 등이 '미취학 부모와 소통하기' 등 주제별 아카데미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촌**

감사의 편지들

⋮

김○민 저는 이번에 지구촌교회 장학회 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장학금 수여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부 학생들을 초청하여 스텝 분들께서 성심껏 섬겨주심은 물론이거니와 30분이나 되는 장시간의 면접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장학 위원님들의 모습에서 지구촌 장학회 사역의 진정성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교회 성도님들께서 아무런 후속 조건 없이 장학금을 외부로 흘려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은 개교회의 성장을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구촌**

⋮

김○선 특별히 저는 미뤄두었던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소망이 있는데 학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감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것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힘들 때 지구촌교회에서 손을 내밀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제 소망에 대한 주님의 인정과 격려였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1년의 과정을 마친 후 필요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 학교 사역 및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의 교류를 돕는 네트워크 사역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도 쉽진 않겠지만 먼저 믿음으로 재정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뛰어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요, 종으로서 겸손히 사역할 수 없겠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지구촌**

⋮

김○원 최근 들어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등록금은 제게 큰 부담이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느꼈고, 저의 삶에서 늘 저를 보호하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지금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넘치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구촌

⋮

주○수 여전히 생활고의 문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고, 당장 신학대학원을 입학하여야 하는데 학비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들어갈 수는 있을까 근심이 있었고 설령 입학을 한다 할지라도 3년간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단 한 분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의 소리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의 믿음의 수준도 결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심령 안에서 밀려오는 소리와 그분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싶어서 계속 주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주의 종으로 서지 않으려는 미련함을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지혜의 근원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매일 간구했습니다. 진실함으로 기도를 드리던 중에, 지구촌장학회로부터 학비 후원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침례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고, 하루 하루 그 분과의 동행 속에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나약함, 저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는 그분의 부르심과 일하심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

⋮

이○민 이제는 장학금을 받은 덕에 이제 필요한 수험서들도 구입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도 준비하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38:8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개역한글),”

“The LORD will perfect [that which] concerneth me(KJV)”처럼

나와 관계있는 모든 것을 완벽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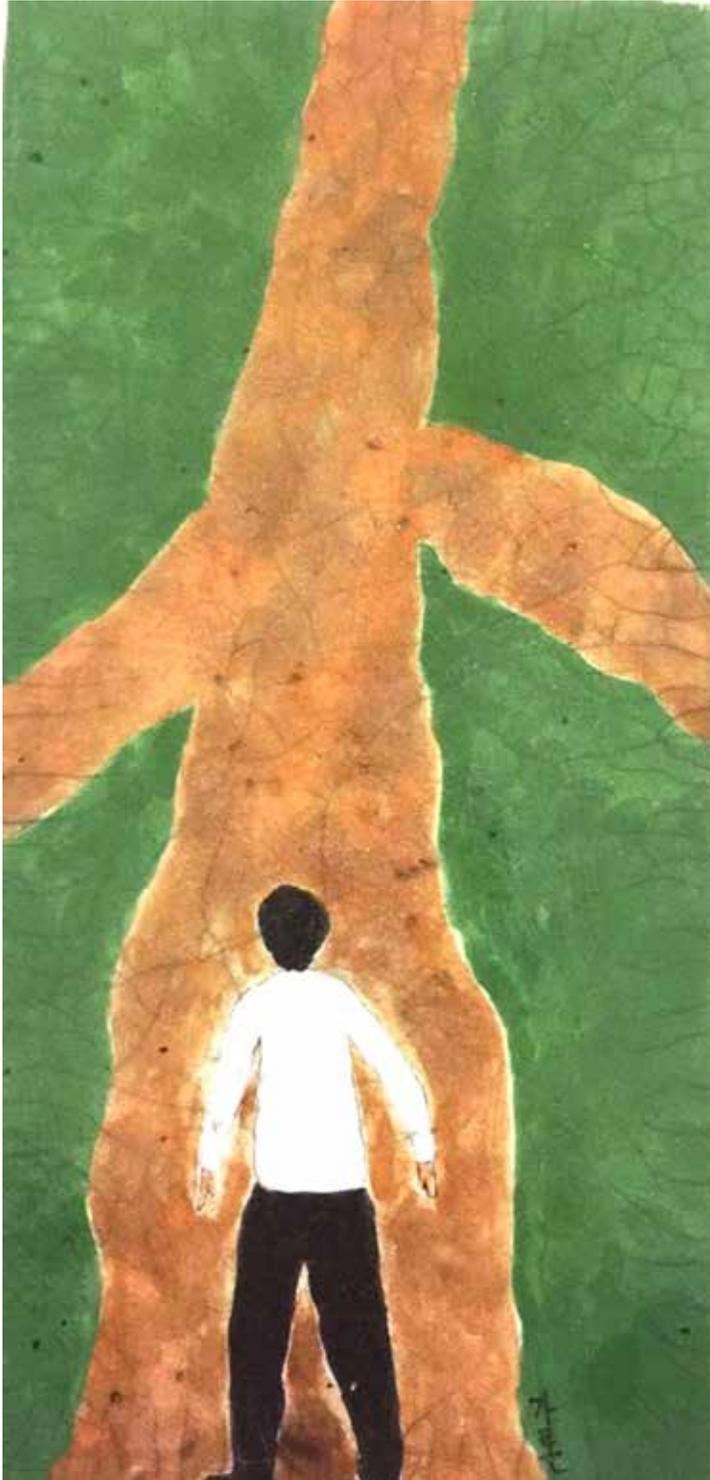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신 지구촌교회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삼아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





12x30 / 도자기 라쿠소성

길ियो 진리요 생명되신 하나님

양연수 | 지구촌전문인미술선교회

3년 전 막연히 주님의 은혜와 임재, 사랑과 감사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작업의 주재료가 흙이다보니 생각처럼 수월하지 않았다.
어떻게 제한된 터치와 색채로 은혜를 나누며 내가 만난 주님을 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중과 공감을 나누어 갈 수 있을까?
그 날부터 작품을 향한 간절함이 기도로 이어졌다.
타이틀을 놓고 고심하던 중 주일 아침
“십자가는 그릴 줄 알잖니” 주님의 음성과 만지심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그랬대! 난 기도 할 때 마다 내 재능에 대한 의문을 토로했던 것 같다.
그 날 이후 십자가는 상징적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지게 되었다.
“십자가의 영성”을 주제로 준비하고 있을 즈음 7교회 일곱 메시지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졌다.
그 중 “사데교회”의 말씀은 잠자던 나의 영혼을 깨웠다.
빛처럼 스치는 영감, 설레임이 도판에 하나씩 그려지며
영혼 구원, 가정 구원, 나라 구원, 교회 구원 등 시리즈로 완성되어 갔다.

나에게 있어 작품의 원천은 아침 QT (매일성경)이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말씀과 은혜를 공급 해 준다.
작품 “길ियो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읽던 중 주신 은혜를 작품화 한 것이다.
이 작업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땀과 목상이 필요했다. 지금껏 응답주신 제목을 디자인하고
목상하며 한 작품 한 작품 이어 온 것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울 해도 소망을 한 아름 주신 주님을 바라본다.
항상 깨어 있는 자녀로 작품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주신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신명기 1:33) **지구촌**

들어라(쉐마), 믿음, 소망, 사랑야!

이희준(함석희/이믿음, 소망, 사랑) | 쉐마홈스쿨



우리 가정의 홈스쿨 이름은 ‘쉐마홈스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명령하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져왔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믿음, 소망, 사랑 세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점을 늘 떠올린다.

크리스천 홈스쿨을 시작한지 4년차에 접어든 아빠로서 주변에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들께 홈스쿨을 추천하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 크리스천 홈스쿨의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경험을 나누길 원한다.

첫번째로 홈스쿨이 좁은 길이라는 것이다.

홈스쿨을 시작한 초기에는 주변의 우려와 편견이 힘들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료들이 적다는 점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 교육을 아웃소싱하지 않다보니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학습해야 한다는 점도 버거운 부분이었다.

홈스쿨의 목표와 아이들의 특성, 학습 속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전혀 손대지 않는 학업의 영역이 생겼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의 상태를 볼 때면 과연 잘 하고 있는 것인지의 구심이 들 때가 많았다.

두번째는 홈스쿨이 탁월한 길이라는 것이다.

아내와 쉐마홈스쿨 커리큘럼을 기획할 때 특별히 성경암송과 외국어, 성품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바를 중점적으로 가르쳤고,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 깜짝 놀랄만큼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할 때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재능을 반짝이며 성경을 암송할 때 홈스쿨의 진가를 확인하곤 한다.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존중하므로 자연스럽게 높은 수준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세번째는 홈스쿨이 행복한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 가족은 2015년 안식년으로 호주에서 약 일년 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기독교 공동체와 홈스쿨링'을 테마로한 여행을 통해 깊은 안식과 성장을 경험했고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커졌다.

크리스천 홈스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고,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매일 매일 함께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다.



네번째는 홈스쿨이 주체적인 길이라는 것이다.

아버지는 홈스쿨의 교장 선생님이다. 따라서 학습의 많은 부분을 엄마가 담당하고 있지만 모든 책임이 아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생활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교육과정에 최대한 참여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훈육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 위로 올라가서 부모를 조종하는 역기능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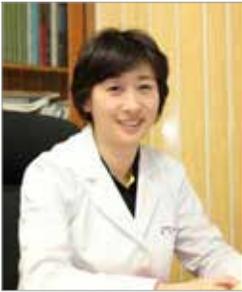
결론으로 홈스쿨은 부르심(Calling)의 길이다.

각각의 가정에 처한 환경과 부르심이 다르므로 공교육보다 '더 낫다' 혹은 '못하다'라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홈스쿨로 부르신다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이 받아들여주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이에게 맞추어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가깝게 동행하시고 살피시며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축복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한다. **지구촌**

중년기 여성이 알아두어야 할 부인과 건강문제

주리에 |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선교부



중년기 여성이란 40대 후반부터 50~60대, 폐경을 전후해서 노년화되는 시기의 여성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젊은 시기를 지나 주름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며, 없던 고혈압과 당뇨 등의 성인병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호르몬적으로는 난소의 기능이 약해져 매월 하던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고 생리 양도 줄어들고, 더 나아가 난소의 기능이 없어지면, 생리가 없어져 출산능력이 없어지고, 여성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면서 피부에 노화가 오고 골다공증이 심해지며,

배 부위에 살이 찌게 되고 몸에 전체적인 노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신체가 약해지다 보니 의욕이 없어지고 매사에 별 의미를 못 두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때로는 우울증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즉, 중년기는 청년과 노년의 사이에 있으며 급격한 신체, 정신적, 감정적 변화를 감내하여야 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잘 준비하여야 점차 길어지는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게 지내게 되겠지요.

부인과 영역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질병은 암, 종양, 호르몬 문제입니다.

1. 부인과 암에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이 있고
2. 부인과 종양에는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 용종, 난소의 물혹, 유방의 섬유선종
3. 호르몬 문제는 폐경기에 의한 전신 증상과 골다공증,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습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러면 중년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부인과 건강검진은 매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검사는 증상이 없는 초기에 발견이 되어야 거의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인과에서 해야 할 암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pap smear)와 초음파 검사입니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우리나라에 많은 자궁경부암의 조기진단 방법이며 초음파검사는 난소암을 진단하는 첫 번째 검사이고 그 외 난소의 혹, 자궁혹(근종, 선근종, 용종, 증식 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 국가 암 검사 중에 자궁경부암 검사(pap smear)가 있는데 이 검사는 자궁경부에 암이 있나 없나 만을 보는 검사이므로, 이외에 부인과 초음파를 같이 보셔야 하지만 전반적인 부인과 질환 유무를 진단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방 검진은 자가촉진이 중요하며 유방 x-ray 촬영이나 유방 초음파를 1년마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5대 암 검사에 유방 x-ray 촬영이 있으므로 격년제로 x-ray와 초음파를 번갈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폐경기 때의 호르몬 대체요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직도 환자들 간에는 호르몬 처치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호르몬 치료는 받는 것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노인이 젊은 여성과 다른 점 중의 하나는 뼈가 약하다는 겁니다.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며 골다공증이 악화되는데 이를 막는 것이 호르몬 대체요법이 되겠지요. 또한 여성호르몬이 체내에 들어가면서 지질 대사를 좋게 하고, 피부를 좋게 하고, 폐경기 증상(жат은 열감, 식은 땀, 두근거림, 전신통증, 성교통, 불면증, 무력감, 우울증 등)을 완화 시켜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몸,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져서 삶이 보다 상쾌하게 되지요. 또한 100세를 바라보고 살아야하는 요즈음의 세대는 호르몬 요법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매년 유방을 포함한 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 하고 약을 본인에게 맞는 것으로 선택하여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유방암 및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혈관질환이 있는 특수한 경우는 금기입니다.



셋째, 성인이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가 있으니 확인하여 접종을 권합니다.

대상포진은 아시는 바와 같이, 노년기로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므로 50세 이후에 한 번 접종을 권하며, Td (파상풍, 디프테리아)도 성인의 경우 한 번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계절백신들 (독감, 일본뇌염)이 매년 있습니다.

넷째,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보다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육체적으로는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사, 규칙적인 건강검진으로 중년기를 넘어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지구촌 가족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도 바라실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건강이 자신 뿐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구촌**



목장교회 주일예배

4월 2일 주일예배는 각 목장별로 모여 주일예배를 드리는 목장교회 주일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목장교회 주일예배를 통해 유사시 소그룹을 통한 예배의 지속과 소그룹 목장의 건전한 모임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구촌**

내 일상의 버팀목 시편 23편

권이영 장로 | 시인



만약 성경을 통틀어 한 부분만을 택해야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시편 23편을 택하겠다. 거기에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고백과 믿음 그리고 염원이 온전히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 여섯 절로 되어있는 시편 23편은 외우기에는 약간의 도전을 느끼는 분량 자체가 오히려 암송에 안성맞춤이다. 경영이론에서 한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동시에 다루는 분야나 항목의 수가 여섯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수시로 마시는 차나 보약같이 나는 시편 23편을 수시로 암송한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꼭 암송한다. 어떤 때는 여러 번 되풀이하기도 한다. 이것은 근년에 수면장애로 힘들었을 때 정착된 습관이기도 하다. 불면이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한 것이다. 이제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마음의 평안과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우선 시편 23편부터 암송한다. 심지어 혈압을 재기 전에도 눈을 감고 암송하며, 그밖에 나이 들며 잦아지는 이런저런 의료 검사를 받을 때도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가끔은 종이에 토박토박 쓰기도 하는데, 은혜가 더하는 느낌이다. 나 운영 작곡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도 예술치료의 일환으로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문학치료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문학치료의 한 분야로서 시치료(Poetry Therapy)가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시치료에 관한 대학과정과 학회나 연구소도 생겼다. 시를 쓰거나 읽음으로써 각종 고통에 대한 치유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시편은 당연히 시다. 시편을 암송하는 것은 시를 암송하는 것이다. 시에는 한 개인에게 닥친 상황에 대하여 미처 몰랐었던 의미를 찾거나 종래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과 힘이 있다. 고통은 의미를 모르면 저주가 되지만 의미를 찾으면 축복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원리를 설파하고 실천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된 세계적인 물로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 빅터프랭클(Viktor Frankl)이 있다. 그는 고난 속에서 값진 의미를 찾았기에 이를 붙들고 극난한 삶의 고비와 풍파를 이기면서 92세까지 성공적인 삶을 누렸다.

시를 쓰는 것은 물론 읽거나 암송하는 것도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보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시의 요체이다. 따라서 시편 23편을 수시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거듭 되새기고 강화함으로써 나를 영적 및 육적으로 평안하고 강건케 하는 길이라고 믿기에 나는 매일 암송을 거듭한다. **지구촌**

어르신과 함께 그리는 희망찬 내일

지구촌노인복지센터 소개

“어르신~ 안녕하세요! 간밤엔 잘 주무셨어요?”
“오늘은 어르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할 거예요.
좋으시죠~?”

오늘도 어김없이 활기찬 안부인사로 지구촌노인복지센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센터로 하나 둘 도착하는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급우를 만나듯 서로 반가이 인사를 주고받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지구촌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를 지켜드리고 싶은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의 소망으로 시작하게 된 첫 번째 직영시설입니다. 첫 열매이기도 하지만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이룬 결실이기도 그만큼 저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큼니다. 설립 이래 꾸준히 다양한 봉사과 섬김으로 오랜 기간 함께 하여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어르신 케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주야간 동안 보호하며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건강관리로 어르신의 행복한 하루를 보장하고,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등급판정 어르신은 평일 저녁 및 주말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치매어르신 가정이 노인복지센터와 좋은 지원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치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 분들께 지구촌노인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을 받으신 치매어르신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매주 월~금 08:00~22:00/ 토,일 08:30~17:30 (주말신청자에 한해서 이용 가능)

*차량코스에 따라 시간이 약간 상이함.

*오전차량시간-08:00~10:00 오후차량시간-20:00~22:00

이용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재활사업 - 개별놀이, 보드게임, 미술활동, 원예치료, 종이접기, 신문스크랩, 창작공예
건강증진사업 - 발마사지, 손마사지, 실버댄스, 은빛체조, 실버레크리에이션,
장수건강체조, 인지향상체조, 재활훈련, 물리치료 등
정서지원사업 - 예배드리기
일상생활지원사업 - 화장실이용훈련, 중·석식제공, 오전오후차량운행

주소 : (1681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14번길16 신봉프라자 2층

문의 : 031-264-9940

이제는 꼭 필요한 분들이 지구촌노인복지센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한 이 사역지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지구촌노인복지센터가 지역사회에 섬김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까지 지구촌교회와 성도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아름다운 섬김으로 함께 동역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아름다워야 할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복지사역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구촌**

함께 이슈(ISSUE)

- 지구촌교회 미추학지구 겨울축제 '조이! 퍼즐을 찾아 떠나요'와 연계하여 진행한 '사랑나눔 저금통'이 총 532개 모금되었습니다. 공휴일과 기도로 진행된 이번 모금이 상처 입은 은지(가명/5세)와 은지 가정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전달식을 통해 윤지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온전히 전달되어 질 계 획입니다. 이처럼 지구촌교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사역이 따뜻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해피란 사역도 4/16(주일), 4/23(주일) 수거 예정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어르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지구촌노인복지센터에서는 주보광고를 통하여 '예배 반주(피아노)봉사자'를 모집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센터어르신 예배를 찬양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심 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담임목사님의 설교내용을 되새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달 설교는 '새로운 부흥, 새로운 미래'의 주제로
'느헤미야 강해(8)~(11)'입니다.
아래 말씀퍼즐에서 주일설교 중심 말씀을 찾아보세요.

새로운부흥
느헤미야 강해
새로운미래

설교페이지바로가기 QR



분	요	한	복	음	초	심	느	헤	미	야	민
당	별	청	계	고	가	해	마	태	복	음	음
채	소	의	시	보	간	시	시	편	의	지	소
플	도	서	지	사	도	행	전	기	웁	구	망
심	경	통	통	혜	은	혜	도	롯	기	촌	사
방	목	장	교	회	주	일	예	배	미	교	랑
스	우	하	림	그	필	부	경	아	가	회	천
수	에	스	겔	종	지	부	흥	기	수	기	심
지	구	본	순	전	구	사	요	부	대	드	편
채	플	의	전	도	촌	랑	나	흠	의	온	여
플	씀	결	혼	예	비	학	교	요	한	씀	플
말	씀	의	가	정	전	교	물	질	마	가	말

- 퍼즐을 찾아 표시해주세요 -

사선, 직선, 역방향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정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빈칸의 단어들을 찾아
퍼즐에 표시한 다음
사진 찍어 4월 22일(토)까지
문자메시지(010-3417-9301)로
보내주세요.

- 당첨자 발표 -

5월호 마지막 지면에 정답 발표
당첨된 분들께는 담임목사님
친필서명이 담긴 저서를 드립니다.

3월 5일 | 느헤미야 6:16-19

(8)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1. 분별의 지혜 (힌트)
2. 의 기도 (5자)
3. 말씀의 (5자)

3월 19일 | 느헤미야 8:1-12

(10) 말씀의 (5자) 사모합니다

1. 말씀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2.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3. 말씀에 깨어져야 합니다.

3월 12일 | 느헤미야 7:1-7

(9) 성공을 관리하십시오

1. 심. 잃지 않습니다. (2자)
2. 심. 하지 않습니다. (2자)
3. 심. 놓치지 않습니다. (2자)

3월 26일 | 느헤미야 9:32-38

(11) 기록된 헌신

1. 하나님의 정 에 헌신 (2자)
2. 하나님의 시 에 헌신 (2자)
3. 하나님의 물 에 헌신 (2자)

● 지구촌교회 정 집회 안내

수지채플		구분	분당채플		수지
시간	장소		시간	장소	
06:15	본당(4층)	1부 예배	06:15	그레이스홀 (지하1층)	목자모임(자매) 수10:00 (본당 4층)
08:00		2부 예배	08:00	본당(8층)	
10:00		3부 예배	10:00		
12:00		4부 예배	12:00		
14:00		5부예배(장년/청년2)	14:00		
		통일비전 주일 예배	14:00	그레이스홀 (지하1층)	
16:00		6부 예배(Holy wave)	16:00	본당(8층)	
18:00	7부 예배	18:00			
		영어 장년 예배	10: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홀(B1층)	목자모임 (형제, 부부) 토06:40 (그레이스홀)
		영어 어린이 예배	09:50	선교센터 글로리아홀(8층)	
		영어 청소년 예배	12: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홀(B1층)	
		영어 청년 예배	14:00	선교센터 올네이션스홀(B1층)	시니어지구예배 금10:00 (본당 4층)
		일본어 예배	14:00	선교센터 소피아홀(8층)	
		중국어 예배	10:00	선교센터 소피아홀(8층)	
		몽골어 예배	14:00	선교센터 글로리아홀(8층)	
		다문화 예배	13:00	선교센터 글로리아홀(8층)	
12:00	202호	아름 (어린이/청소년/장년)	10:00 12:00	105호 106호	분당
	110호	영아촌 (0세-36개월)	10:00 12:00	702호	
10:00	111호	유아촌 (4세-5세)		701호	
12:00	208호	유치촌 (6세-7세)		703호	
14:00	111호	미취학 연합촌(4세-7세)	14:00	701호	
	201호	유년촌 (초1-초2)	10:00 12:00	712호	목자모임(자매) 수10:00 (본당 8층)
10:00	203호	초등촌 (초3-초4)		711호	
12:00	207호	소년촌 (초5-초6)		710호	
14:00	201호	어린이 연합촌 (초1-초6)	14:00	712호	
	202호(중1)	중등마을 (중1-3)	10:00	203호(중1)	목자모임 (형제, 부부) 토06:40 (본당 8층)
10:00	310호(중2-3)			207호(중2-3)	
	311호			414호	
	310호	중등마을 (중1-중3)	12:00	203호	시니어지구예배 금10:00 (본당 8층)
12:00	311호	고등마을 (고1-고3)	12:00	206호	
11:30	본당(4층)	수요예배	11:30	본당(8층)	
19:30	그레이스홀		20:00		
05:00	그레이스홀	새벽기도	05:00	102호	
06:00	본당		06:00	그레이스홀	
21:00	본당(4층)	금요일야기대회	21:00	본당(8층)	



수지채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48(신봉동)
대표전화 031-264-9191 팩스 031-270-8100



분당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154번길 6(구미동)
대표전화 031-710-9300 팩스 031-710-9400



필그림하우스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화로 1862
대표전화 031-589-7601 팩스 031-589-7610



GMN채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4번길 19 (구미동)
대표전화 031-719-919 팩스 031-710-5961



경기대채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이의동)
대표전화 031-270-8230(주일전용)



구리지구촌채플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86 5-6층 (수택동)
대표전화 031-564-9291 팩스 031-569-9291

구분	경기대채플		GMN채플		필그림하우스		구리지구촌채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시간	장소
1부 예배							08:00	
2부 예배							10:00	민음채플(5층)
3부 예배	10:00	텔레컨벤션센터	10:00	GMN채플(B1층)	9:15	피데스채플	12:00	
4부 예배	12:00	텔레컨벤션센터	12:00	GMN채플(B1층)	11:00	카리타스채플		
구리 청소년 예배							10:00	소망채플(6층)
구리 어린이 예배							12:00	소망채플(6층)
구리 미취학 예배							12:00	사랑채플(6층)
구리 수요예배							20:00	민음채플(5층)
구리 금요일야기대회							21:00	민음채플(5층)
구리 새벽기도							05:30	민음채플(5층)

- 경기대채플에서는 미취학/어린이/청소년 예배가 동일시간에 진행됩니다.
- 분당채플 4부(12시) 예배에 영어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원고접수 및 안내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g)의

- 1 우측 하단 Tag Cloud에 지구촌비전으로 들어가셔서
- 2 원고접수 게시판에
- 3 사진과 원고,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접수박스가 안보일 경우

인터넷 메뉴줄 우측의 호환성보기 설정 필요

원고문의 | 김영기 장르 (ykkim@mju.ac.kr)

접수된 원고는 교정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지면 여간상 게재하지 못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편집실



지구촌교회 방송설교 안내

ON AIR

지구촌교회 홈페이지(www.jiguchon.org)와 지구촌교회 어플을 통해서도 지구촌교회 **예배 생중계 시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시간 기준) **주일예배** 10시, 12시, 14시, 16시 **향수예배** 수요일 오전 11시 20분

·지구촌교회어플



◀ 지구촌교회 어플을 설치하시면 **예배생중계, 지구촌설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 바로가기 QR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지구촌교회 설교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http://www.jiguchon.org>
<http://www.c3tv.com>

라디오 '생명은 빛으로' 목요일 오전 9:00~9:30
서울극동방송(FM106.9)

TV

지구촌교회
방송시간

- **CTS** 화 오전 5:30-6:00 [SKY LIFE(CH 173), QOOK *T(CH 236), BTV *K(CH 551), U+TV *G(CH 180)]
- **주티브로드 기념방송** 화 오전 5:30-6:00 [아날로그(CH 53), 디지털(CH 222)]
- **CGN** 화 오후 6:50 진재혁 담임목사 / 목 오전 7:40 이동원 원로목사(영어자막) • **Cchannel** 목 오후 12:20
- **CBS**(CH 용인 112 / 분당 511) 금 오전 11:00-11:30, 월 오전 12:00-12:30 • **GoodTV** 월 오후 2:00(격주편성)

디아스포라 미션교회

나이키터 지구촌교회	639-2, Makio, Nishi-Ku, Niigata-Shi, Niigata, Japan	+81-25-201-8122
호치민 지구촌교회	B10-2 Nam Thien 2, Phu My Hung, Q. 7, HCMC, Vietnam	+84-8-2211-9951-2
해밀턴 지구촌교회	33 charlemont st, Hamilton, Newzealand	+64-27-414-2777
동경복음교회	2-45-9 Toukyoufukuinkyoukai, Higashinippori, Arakawa-ku, TOKYO, 116-0014, JAPAN	+81-3-3891-0747
동경지구촌교회	169-0073 Tōkyō-to, Shinjuku-ku, Hyakuninchō, 1 Chome-9-3	+81-3-3360-7791
영역교회		
광고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 85 우연프라자 7층	031-212-2291
기흥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81	031-283-7991
동백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3 삼성타워 2층	031-693-8291
동탄 지구촌교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북길 73	031-8003-8253
민들레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664, 2층 1호 (사천동335-2)	070-7757-1201
세움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97-20	031-205-1191
송파 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40 3층	02-431-6458
은사랑 지구촌교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곡길 80	070-4119-5941
위례 지구촌교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32길 30	070-4634-3927
죽전 지구촌교회	경기도 용인시 죽전로 49 시티빌딩 7층, 8층	031-896-7070
300목장교회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1208-2 시티빌딩 7층, 8층(내)	

협력교회

골드코스트 지구촌교회	170 Nerang Street, Southport, QLD 4215, AUSTRALIA	+61-433-60-9191
뉴비전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1-408-719-0000
뉴저지지구촌교회	70 Sheridan Ave. Ho-Ho-Kus, NJ 07423. USA	+1-201-445-0191
다바오 디아스포라 교회	Door 1 sigma st. Donavicenta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63-915-582-6307
동안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라이프스프링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202동 211-4호	032-831-3775
목동 지구촌교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79	02-2647-0191
밴쿠버 지구촌교회	8383-140 St. Surrey, B.C. Canada	+1-604-588-3277
시애틀 지구촌교회	4900 168th St. SW Lynnwood, WA 98037	+1-206-425-350-0191
아틀란타 지구촌교회	9800 Medlock Bridge Rd #7 Johns Creek, GA 30097 4480 Peachtree Corners Cir. Norcross, GA 30092	+1-404-579-4570
얼버인 지구촌교회	15 Orangetree Irvine, CA 92618	+1-714-673-1978
영진침례교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58번길 5	051-415-0831
워싱턴 지구촌교회	13421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1-301-460-1656
천안 지구촌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17번지, 201호 (두정동, 퓨전리더스빌딩)	041-523-1191
춘천침례교회	강원도 춘천시 상심로 47번길 99	033-254-4059
The지구촌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47 빛가람메디칼빌딩 602, 603호	070-4740-5555
송탄중앙침례교회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368번길 25 (독곡동 403-5)	031-665-2995



원코리아연합기도회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제4회 원코리아연합기도회가 분당채플 분당에서 11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교회와 할렐루야교회 등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단체에 소속된 성도들은 통일을 위해, 복합을 위해, 민족의 화합을 위해,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구촌**



2017 목자수련회

2017 목자수련회

2017년 목자와 마을장을 대상으로 목자수련회가 3월 4일 분당채플 분당에서 열렸습니다. 진재혁 담임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 목자와 마을장들이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파하고 정성을 다해 목원들을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구촌**



회구	목원	목사	회장	부회장	후보
분당	김영호	진재혁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안성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안성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안성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안성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김영호



2017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신자의 증인으로

4/10월-15토, 새벽 5시
수지, 분당 양 채플 본당

성금요일 주의 만찬 4/14 금 오전10:30(연합목장), 오후 8:30



이동원 원로목사



진재혁 담임목사



박춘광 목사



박길호 목사
구리지구촌채플

